

## 한국 미혼모의 임신 체험 연구

한 진 숙\* · 문 영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의 미혼모 문제는 경제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면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정신적 성숙이 이에 따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성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올바른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채 외부로부터의 성적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성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미혼모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김상원, 1999; 박성정, 1996; 박수천, 1998; 윤혜미, 1999).

한국의 미혼모의 실상은 성에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은폐하려는 분위기로 인하여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혼모를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반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태에

서 한국의 미혼모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1976년에는 2080명이 1988년에는 125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십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안순덕, 1985; 이화영아원, 2000; 조성훈, 1999).

한국에서의 미혼모는 구미제국과는 달리 미혼부가 아닌 미혼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로 죄악시하여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장필화 등, 1991; 조성훈, 1999).

미혼모 문제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의 차원에서 벗어나 미혼모의 건강문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들의 건강문제가 잘 관리되지 못할 경우 미혼모 자신이나 아기, 그리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들의 임신은 예견치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므로 태교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으며 태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식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은 지속된다. 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의 위험이 우려되며 임신부의 산전 산후 교육 부재로 인해 미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han8598@yahoo.co.kr

혼모의 건강도 매우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잃는 등 현재의 생활기반이 흔들리면서 더욱더 위축되고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자책감에 빠지고 생에 대해 부정적이며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박문일, 2000; 이원순, 1999; Villanueva 등, 2000). 미혼모들이 분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이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미혼모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 미혼모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복지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간호학이 아닌 타학문에서 미혼모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이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적 연구는 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미혼모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미혼모들을 직접 만나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심적 갈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아 본 연구자는 질적인 방법으로 미혼모들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혼모들의 임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한국의 미혼모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 II. 문헌 고찰

한국의 성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의 성적 우월성과 남성 본위의 성관계를 중심으로 한 성 관습을 정착시켜 부적절한 성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이 남성 우선으로 해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에까지 이어져 미혼모의 발생을 촉진케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이배용 등, 2000). 또한 기성세대들은 성에 대해 언급하기를 불편해하므로 청소년들의 임신과 성폭력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미혼모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각에서는 미혼모를 “성일탈자”, “사회적 일탈자”로 소외시켜서 미혼모로 하여금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박홍주, 1993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발생의 원인을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의 원인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가 증가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 가정이 증가하여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기에 생기는 성적 호기심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성규범의 변화, 성윤리의 변화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미혼모는 증가한다.

가정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 저하로 인하여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부모의 성차별 태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적 능력이 낮아서 자신의 행동결과를 생각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통제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성과 임신에 대한 무지와 자아 정체감이 낮으므로 인해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미혼모 유발을 증가시킨다(강태순, 1994; 박성정, 1996; 이찬 등, 1999; 최동진, 1990).

미혼모는 가족의 결속력이 약하므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약하고 그로 인해 탈선행위를 일으킬 위험이 많아 이는 사회단계를 혼란시켜 가족 해체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김근조, 1986; East 등, 1992).

미혼모 문제는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미혼모 자신과 그로 인해 태어난 신생아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미혼모는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이 지속되므로 산모는 고위험 산모가 될 확률이 높으며, 전치태반이나 자궁내 태아발육부전, 태반조기박리 등의 이유로, 태아는 미숙아나 조산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죄의식은 물론 가정의 지지나 사회적 냉대로 인해 적절한 태교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는 태어나고, 이들은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결국은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박문일, 1998; 한국여성개발원, 1984; Bacci 등, 1993; Felice 등, 1999; Lao 등, 1997; Ventura 등, 1998).

한국의 미혼모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차원의 미혼모대책과 서비스지원사업은 매우 미약하였고, 미혼모를 보호여성으로 관리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미혼모의 건강 및 복지를 다루어 오지 못했다. 1980년대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면서 1981년부터 정부가 미혼모 예방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에 여성문제 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서야 민법이 개정되어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 한국에는 미혼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제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미혼모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미혼모를 위한 시설로 호스텔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덴마크에서는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 권리가 부여되며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미혼모의 권리가 보호되며 미혼모의 자녀에게도 적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독일의 경우 민법 및 청년 복지법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모든 경제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아동수당과 주거 보조비, 생활비 보조 등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가 지원된다(이원순, 1999; 조성훈, 1999; 한국여성개발원, 1984).

일본은 한국과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이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성교육은 한국보다 앞서 있다. 과거 교육내용은 순결교육으로 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에는 순결교육차원을 벗어나 유럽선진국의 성교육을 모델로 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계수연, 1998). 미국에서는 미혼부가 수입의 일정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해 놓고 있으며 미혼모에게는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사회적응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해서 임신·출산을 전후로 서비스가 일정기간 실시되고 있으며 아기양육비나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서비스는 미흡하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임신연령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은 미혼모 발생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그 대책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미혼모 발생이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과거처럼 가난한 결손가정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혼모 발생현황과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단계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은 van Manen의 방법으로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는 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van Manen의 해석학적·현상학적 연구와 기술을 하는 데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van Manen, 1990).

첫 단계는 살아 있는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실존적 조사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현상학적 반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상을 특징 짓는 주제를 분석하고, 그 동안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반성함으로써 연구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제를 결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현상학적 기술단계이다.

##### 1) 체험의 본질에 집중

이 단계는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고, 가정과 선이해를 설명하는 단계(van Manen, 1990)로 구성된다.

##### (1)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체험에 관한 현상 지향

본 연구자는 분만실과 신생아실,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 중에 미혼모들의 임신과 분만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변화여서 ‘미혼모들은 임신을 알고 난 후 무슨 생각을 할까?’ ‘임신 기간 동안 그들이 겪는 체험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미혼모들의 임신 체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 (2) 현상학적 질문형성

본 연구에서 형성된 현상학적 질문은 ‘미혼모의 임신 체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 (3) 선이해 설명

본 연구자는 임신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타인의 임신과정은 직업상 많이 경험하였으나, 임신과 분만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혼모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갖는 과정 동안 겪는 체험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는 비교적 최소화된 상태였다. 아울러 참여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정과 해석과정에 선이해나 선입견을 줄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어느 정도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심층적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연구자의 사고, 지각, 감정에 대한 기록을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완결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 2) 실존적 조사

##### (1) 십대 미혼모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

##### (2) 어원의 추적

어원은 그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본래적인 생활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van Manen, 1990).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혼모’의 어원을 추적하기로 하였다.

##### ① 미혼모(未婚母)

未 : 아닐 미, 地支의 하나, 못할 미, 무성할 미  
· 나무의 가지와 잎이 많은 모양(황연정·이칭화, 1996).

·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의 과실은 덜 익었다 하여 ‘아직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婚 : 혼인할 혼, 장가들 혼

· 女 : 계집 녀

- 뜸 : 저물 혼, 저녁 혼
- 옛날 중국에서 황혼 무렵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 혼례를 올렸던 관습에서 비롯된 글자 (권지용, 1974).
- 신부(女)를 해질녘에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려 장가가니 '혼인하다'라는 뜻이다.

母 : 어미 모

- 女 : '계집 녀' 안에 : 을 찍은 자
- : 은 좌우의 유방을 뜻한다.
-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한 여성의 가슴에 한 쌍의 유방이 있는 모습.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황연정·이청화, 1996 ; 권지용, 1974).

未婚母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국어국문학회, 1999).

### (3) 문학으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문학이나 다른 이야기 형식들 (전기, 일기나 일지, 예술작품)은 현상학자가 실천적인 통찰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느낌, 감정 등을 경험할 수 있고 현상학적 통찰력을 풍부하게 갖게 된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문학작품으로 수필과 소설을 고찰하였다.

#### ① 수필 부문

수필 속에서 미혼모들의 아픔이 생생하게 전해져서 시나 소설 속에서 표현한 것과 다르게 미혼모 체험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수필을 찾아 그것을 반복하여 여러 번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어느 정도 포화되었다고 생각될 때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모는 배가 불러오자 본인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의식

하게 되고 이웃 사람들의 눈에 떨까 두려워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 【 나는 죄인이다 】

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배가 조금씩 불러 왔을 때는 몇 달이고 바깥 출입을 안했다. 조수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그러다 지치면 자고 자다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 먹고. 식구들 앞에선 행여 배나온 거 티 날까 봐 힘주고.

(18세, 고졸)

#### 【 내가 나에게 】

항상 나의 모습 뒤에는 가려진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웃고 즐기는 모습 뒤에 초라한 얼굴이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예전의 난 항상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들과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19세, 고졸)

미혼모들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하여 임신기간 동안 아기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유산을 생각하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입장을 생각하게 된다. 미혼모는 나이가 어리고 본인이 아기를 기를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아기에 대해 측은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 【 용서해 주라 】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물단지라고 미워하고 너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했었던 게…….

어차피 이렇게 될지 너한테 그랬던 게 엄마는 지금도 후회되구.

아마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거 같구나.  
 용서해 주라.  
 아가야 사랑한다.  
 (16세, 중졸)

② 소설 부문

소설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을 하며 현대사회의 온갖 모습들을 그려내는 데 매우 적합하며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품 속에서 공유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좋은 문학 장르이다.

미혼모들은 이성을 만나는 동안 성의 무지에 대해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임신을 하고서야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다. 토마스 하디의 소설 「테스」에서 주인공은 임신을 하고서야 자신이 성에 대해서 무지함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하고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

【 테스 】

"그럼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픈 생각이 없었다면 넌 좀 더 조심할 해야 했을 거 아니냐!"

"아아, 어머니도 참!"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테스는 어머니를 보고 외쳤다.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넌 몇 달 전 이 집을 나설 때 나는 철없는 여자 애였어요. 왜 어머니진작에 남자란 무서운 거라고 말해주질 않았나요? 왜 조심하라는 말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부잣집 딸들은 소설이라도 읽고서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몸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런 걸 깨우칠 기회도 없었어요.

어머닌 그런 걸 일러주신 적도 없구요!"

미혼모들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한 후 남자가 아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아기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유산을 생각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을 포기하게 된다.

수잔 스탠포드의 자전적 소설 「내 울음 언제까지」에서 주인공은 아기의 생명은 인정하되 자신에게는 암적 존재로 생각되니까 세포 덩어리라고 하면서 그 세포 덩어리를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나 아기는 암적 존재같이 쭉쭉 자라서 유산을 할 수 없게 된다.

【 내 울음 언제까지 】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었다.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물체'가 아기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가 없었다. 아기란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닌거. 영혼이 있고, 온 몸이 분홍빛이고, 우유냄새 풍기는 숨결을 내뿜고, 또 열 개의 작은 손가락과 열 개의 작은..... 이런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의 뚜껑을 광 하고 달아 버렸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세포덩이를 느끼게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것이었다. 세포조직, 그 말은 증상이었고 무감각한 것이었다.

어느 시점에서 - 언제였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 이 원하지 않았던 세포조직을 내 몸에서 떼어내야만 한다고 느꼈다. 전화번호부를 펼쳐서 병원의 전화번호를 찾아내고, 수화기를 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손가락은 막상 얼어붙고 말 것이다.

(4)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 표본 추출의 적절성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일개 광역시 및 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충족되었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다. 참여자들은 15세에서 21세 사이의 미혼모였다.

1회 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평균 2시간 정도였다.

면담시에 비언어적 내용이나 표정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면담 후 녹음 내용을 기록할 때 적시하였으며, 현장 기록 일지에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면담시 녹음한 내용은 면담 후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면담시에 참여자가 표현한 말투 그대로 기록하였다.

### 3) 해석학적·현상학적 반성

현상학적 반성은 어떤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van Manen, 2000). 이 단계는 주제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주제분석 단계에서는 자료에서 주제적 측면을 밝히고 주제진술을 도출하며, 이것을 언어적으로 변형하고 예술작품으로부터 주제기술을 수집한다. 본질적 주제의 결정단계에서는 주제분석과 그 동안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반성함으로써 연구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제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경험의 본질적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자료를 여러 차례 분석하여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본질적 주제는 미움으로 참여자 자신과 아기아빠, 아기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남자에 대한 미움

- ① 임신 전 - 만나면 즐거움
- ② 임신사실 확인기 - 임신 사실은 인정치 않고 등짐

#### ③ 임신기 - 책임을 회피하고 등짐

#### (2) 아기에 대한 미움

- ① 임신사실 확인기 - 아기가 미워짐
- ② 임신 초기 - 아기가 없어지기를 바램
- ③ 임신 말기 - 인생을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함

#### (3) 자신에 대한 미움

- ① 임신 전 - 만나면 좋은 시간들
- ② 임신사실 확인기 - 자신의 성(性)에 대한 무지를 탓함
- ③ 임신 초기 - 불안과 두려움으로 죄의식을 느낌
- ④ 임신 중기 - 몸의 변화로 타인에 대해 창피함
- ⑤ 임신 말기 - 자포자기함

#### (1) 남자에 대한 미움

- ① 임신 전 - 만나면 즐거움

참여자는 남자를 만나던 초기에는 남자를 만나기만 하여도 즐거웠다. 남자는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참여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참여자들의 마음을 사게 된다. 몇 번의 만남 후에 남자는 동침을 원하고 참여자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남자의 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애 낳기 전부터 오빠랑 맨 처음 사귄 때는 진짜 오빠가 그렇게 잘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해주고 학교 다니면 같이 손 붙잡고 다니고 항상 같이 붙어 나녔으니까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오빠 취업 나갔을 때도 오빠 일 주일마다 집에 왔어요.

(참여자 1)

처음에는요. 착했어요. 애가.... 착했는데.. 저기 임신.... 나한테도 정말 잘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배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개와 사귄지요. 따져도 보고... 착했는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애가 360도 확 바뀌어 버렸어요.

(참여자 5)

착하구 잘 해주구...

그냥 잘 챙겨주고...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구.. 아프면 잘 챙겨주구.. 그랬어요.

잘 생기구.

(참여자 7)

처음에 친구가요. 딱 그 오빠를 데리고 왔는데 요. 그 오빠가 저 좋다고 했나봐요.

친구가 그 오빠하고 사귀어보라고.

그 오빠 정말 착하다고.

싫다고 했는데. 그 애가 자꾸 막 착하다고 사귀어보라고 해서.

사귀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오빠가 자꾸 자재요.

싫다고. 싫다고 한다고 오빠가 빠져서, 두 달 있다가 저도 그 오빠가 좋아 가지고 같이 잤어요.

(참여자 2)

② 임신사실 확인기 - 임신 사실은 인정치 않고 등짐

참여자들이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남자에게 말을 하자 남자들은 모두 임신 사실을 부인하고 참여자들을 멀리하게 된다.

임신했다고 하니까 왜 진작 말하지 안 했냐고.

뭐지? DNA인가? 지 애기 맞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럼 되게 의심스럽단 말이잖아요. 뻘다고,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진다고.

(참여자 2)

내 애기 맞냐고.

내 애기 맞냐는 그 말 들으니까 미워져요.

자기 애기 임신했다니까 거짓말이래요.

유전자 검사해서 맞으면 자기가 키운대요.

(참여자 2)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요. 그 때부터는 안 왔어요.

임신한 거 알고도 뭐 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냥... 애기도 안하고 그냥 개네 집에 있고 그랬어요.

(참여자 5)

처음에는요. 착했어요. 애가... 착했는데.. 저기 임신... 나한테도 정말 잘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배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개와 사귄지요. 따져도 보고... 착했는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애가 360도 확 바뀌어 버렸어요.

(참여자 5)

③ 임신기 - 책임을 회피하고 등짐

임신을 한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며 남자를 만나고 싶어할수록 남자들은 임신한 애기가 자기 애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참여자를 피하고 도망을 다닌다.

이 애기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는 내가 남자를 안 만났거든요... 만나지 않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 얘기를 그 사람 애기다 편정이 내려지잖아요.

그 사람... 그 오빠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여자가 받고 또 한번... 여자가 받고 그래서 그거 혹시 000 핸드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래서.. 아 저 그냥 아



는 사람인데요. 뭣 좀 물어 불려고 그러다고 바뀔  
달라고 그랬더니.. "저 00씨 애인인데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여자 3)

어린 나이에 어른들한테 샅대질도 받아보고 저  
는 아무 이유없이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아기  
아빠가 가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혼자 저 놔  
두고, 저항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참여자 3)

## (2) 아기에 대한 미움

### ① 임신사실 확인기 - 아기가 미워짐

임신을 모르다가 뒤늦게 임신을 깨달은 참여자  
는 자신의 성에 대한 무지와 함께 아기에 대해 원  
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외모가 변하  
고 젊음을 즐길 수 없게 되자 아기에 대해 원망하  
는 마음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내 친구들도 임신을 했으면 좋아하건 안 좋아  
하건 아기를 가졌으면 무조건 지워야 한다. 그게  
틀에 박혔어.. 그러니까 나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 봐두니까 나도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뗏어야 된  
다. 낳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참여자 1)

### ② 임신 초기 - 아기가 없어지기를 바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면  
서 아기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죽기를 바  
라게 된다.

너한테, 아기하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속으로만 얘기하고, 너무 화가 날 때  
는 오빠도 연락 안 되고 그럴 때는 너 때문에 지  
금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애들 없을 때는 배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애 낳기 전에  
때렸으니까 인제 애가 땡깡 써도 때리지 말라고,  
나오기 전에 많이 맞았으니까... 다 불쌍하대요.

(참여자 1)

지우고 싶고...

약 먹고 떨어지는 것으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생리 안 해가지고..

내 친구도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다시 하고 그랬어요. 나  
도 그냥 그런가보다 그랬어요.

근데 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불안했어요.

(참여자 2)

내 친구들도 임신을 했으면 좋아하건 안 좋아  
하건 아기를 가졌으면 무조건 지워야 한다. 그게  
틀이 박혔어.. 그러니까 나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 봐두니까 나도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뗏어야 된다. 낳아서  
는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참여자 1)

애가 발로 차고 태동 느꼈을 때는 그 때는 어  
떻게 하지.

애들이 그러는데 처음에 약 먹고 때는 애들도  
있대요. 학교에서. 그렇게 까진 애들은.

나도 한번 약 먹고 때볼까?

떨어지라고 배도 계속 때리고.

아기에 대해서 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임신되어서, 빨리 떨어진다고. 왜 생겼냐고.

(참여자 2)

③ 임신 말기 - 인생을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함  
 임신 초기에 아기를 유산시키고 싶었으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아기가 점점 자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아기를 죽이려고 배를 때리는 등의 가혹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구선 딱 인제 5월달 7개월이라는 인제 그렇게 막 돌아가면서 기숙사 있는데도 5.6 개월 났는데도 배가 어느정도 나와서는 그래도 조이는 청바지 입고 특히 기숙사에서 밤에 애들이 전화로 폰팅 해 가지고 만나서 나가 가지고 막 놀다가 오고 술 먹고...

그러구선 술 먹으면 그래도 애 생각이 안 나오. 잊어 버리구...

그러구선 술이 막 깨기 시작하면은...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막 원망스럽고 오빠가 보기 싫고.. 죽고 싶고..

(참여자 1)

아빠가 엄격하시고 무서우니까 나도 우리 엄마 실망시켜주기 싫으니까는...

딱 3개월 4개월까지는 애에 대한 집착심도 없고 그냥 애가 진짜 있으니까..

그런 것...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5개월 되고 막 태동이 느껴질 때는 무지하게 때렸어요. 니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그러면서 애들 막 임신했다 애 지웠. 지웠다. 얼마 들었다.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그런 돈 있으면 지울텐데.. 막 그 생각도 해보고

(참여자 1)

진짜 보기도 싫구.. 보기도 싫구 낳기도 싫구... 애라는 존재가 싫었구.. 애가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몸이 이렇게 되

지는 않았을 텐데... 막 몸이 붓고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손이 부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는 느낌도 이상하고 애들 쳐다보는 시선도 틀리고... 회사 다니는데... 계속 큰 박스 티 입고 다니니까 회사 오빠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임신했냐? 막 이러... 솔쩍 하는 말인데도 막 내 마음 속에 "눈치했냐"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느끼고 혼자서.. 애라는 게 싫었어요.

(참여자 1)

5개월, 5개월이 되면 유산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기가 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기가 차잖아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낳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 가서 당장 지우려고. 아기를.

(참여자 6)

### (3) 자신에 대한 미움

#### ① 임신 전 - 만나면 좋은 시간들

처음 남자를 만난 참여자들은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끼면서 남자를 매우 따르게 된다. 만나면 마냥 좋기만 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애 낳기 전부터 오빠랑 맨 처음 사귄 때는 진짜 오빠가 그렇게 잘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해주고 학교 다니면 같이 손 붙잡고 다니고 항상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오빠 취업 나갔을 때도 오빠 일 주일 마다 집에 왔어요..

(참여자 1)

처음에는요. 착했어요. 애가.... 착했는데.. 저기 임신.... 나한테도 정말 잘 해주고, 웃도 사주고 그

랬었거든요.

배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개와 사귄지요. 따져도 보고... 착했  
는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애가 360도  
확 바뀌어 버렸어요.

(참여자 5)

착하구 잘 해주구.

그냥 잘 챙겨주구.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구.. 아프면 잘  
챙겨주구.. 그랬어요.

잘 생기구.

(참여자 7)

## ② 임신사실 확인기 - 자신의 성(性)에 대한 무 지를 탐함

호의적으로 대하던 남자친구가 같이 잠자리하  
기를 요구하자 참여자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동침  
을 쉽게 허락하게 된다. 불과 몇 번의 동침으로  
임신을 하게 된 참여자는 성에 대해 무지한 자신  
을 질책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6월 달 7월 달은 몰랐구 임신한 거 어떻게 알  
게 됐어?

그냥 생리 안 하구.

그냥 몸이 이상한 것 같구.

그냥 배두 나오구 ... 배에 뒤통가 들은 것 같기두  
하구, 그냥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열주 돼 줏구, 거의 배 많이 거의 정  
난 아니게 나왔을 때 ... 막 가운데 선두 생기구  
막 가슴두 커지구

그런 거 무서워서 확인은 못 해보구요.

테스트기는 못 해보구... 보이는 걸루.

(참여자 7)

배가 자꾸 나오고 뱃속이 움직여서 회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갔었어요, 친구하고.

의사가 임신이라고.

그 얘기 듣고 겁나더라고요. 무섭고요.

창피하고 막.

(참여자 2)

## ③ 임신 초기 - 불안과 두려움으로 죄의식을 느낌

임신을 확인하고 아기가 점점 자라는 것을 느  
끼게 되자 참여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여도 소용이  
없고 부모님께는 말하기가 두려워 혼자서 두려움  
을 느끼면서 경솔했던 자신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된다.

또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안  
(임신)한다고 했으니까 무서워서 계속 울면서 전  
화했고.

(참여자 1)

놀다가 오고 술 먹고...

그리구선 술 먹으면 그래도 애 생각이 안 나오.  
잊어버리구...

그리구선 술이 막 깨기 시작하면은.....

막 원망스럽고 오빠가 보기 싫고.. 죽고 싶고..

그리구 애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  
도 들고...

갈수록 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밥도 이제는...

(참여자 1)

## ④ 임신 중기 - 몸의 변화로 타인에 대해 창피 함

임신이 진행되어 배가 불러오자 평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에서 참여자는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고 변모한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5개월 때 태동 느꼈을 때, 그때 "눈물이 난다."

그리고 내 친구랑 함께 방을 쓰는데, 배 만지면 느낌이 올 것 아니에요. 근처도 못 오게 했고, 회사에 있기 싫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막 그런 것 얘기하고, 막 죽고 싶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병신같이 이렇게 됐는지....

(참여자 1)

또 그럴 때는 배를 움츠리고 있어요. 이렇게 잠바 껴다가 배를 이렇게 잡고 다녔어요. 하도 저기 해 가지고 막 뛰다가 태동 느꼈 때 니가 움직인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썼어.. 죽고 싶다고 그리고 원망스럽다고.

(참여자 1)

⑤ 임신 말기 - 자포자기함

유산이 어려운 시기가 되나 임신을 무방비 상태로 지속하면서 참여자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한다. 자살을 하려고 저수지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동맥을 끊을 생각도 해보는 등 죽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저희 엄마도 저도 막상 지우려니까, 저 진짜 자살하려고 했어요.

시도는 했어요. 마지막 7개월 때 병원 가기 전에 뿌리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저수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쫓아 왔네.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오빠가 말 못하면 내가 죽거나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같이 죽어

버리자고요. 그러더니 죽기는 싫었나 말을 해 버리더라고요. 미혼모 그 곳도 들어 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서 애 낳고 양육하려고....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해보고 죽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내 자신이 너무도 싫었어요. 그냥 나라는 인간이 싫었어요.

내 자신도 싫고 나라는 애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렇게 싫고 밉고.

(참여자 1)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아기 임신한 거 알면서도 막 약도 먹어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냥 큰 약은 아니었는데, 아기에 대해서도 죄책감 못 느낄 때니까, 막 그래 어차피 지을 생각이었으니까 막 조금만 아프면 진통제 먹고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것도 먹고, 약도 여러 가지 먹었어요. 진통제는 항상 달고 다녔어요.

(참여자 3)

그래서 가다가다 못해서 이제 생각하다 내가.. 내가 차 오는 데서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강경 가서 황산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죽을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큰집에 가서 용서 빌고 아기 떼고 그렇게 있을까.. 생각도 하고.. 나도 능력이 안 되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뒹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감정을 절제를 못함)

(참여자 5)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안 그랬을 텐데...

답답...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자에 대해서는 싫어요.  
(참여자 7)

#### 4) 해석학적·현상학적 글쓰기

해석학적·현상학적 글쓰기는 연구의 본질이며, 연구과정의 최종단계로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일깨우고 경험에 대한 더 근본적인 근거를 경험하게 된다. 곧 살아 있는 경험을 설명하고 의미 있는 구조 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해석학적·현상학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면접한 내용을 오랜 동안 다시 검토하고, 주제를 다시 보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혼모들로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찍부터 부모의 이혼을 보고 자랐거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편모 아래에서 양육되었거나 부모가 모두 없는 상태이거나,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가출한 상태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참여자가 가출하여 방황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가정에서 자랐거나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다가 남자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청소년보다 이성교 사귄 기회가 더 많고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나 언니들을 만나 그들을 모델로 생활하다가 주변의 남자들과 쉽게 가까워졌다. 몇 번 만난 후 남자 친구와 쉽게 동침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확인하게 된다. 임신 초기에 괴로워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물론 임신을 시킨 남자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어렵게 임신 사실을 남자에게 알리지만 남자들은 임신을 부정하고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연락처도 끊어 버렸다. 참여자들은 임신을 확인하고는 죄의식을 강하게 느껴 남자와 동침한 것을 후회하고 성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후회를

하였다. 부모 몰래 임신을 한 것은 부모와 자신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부모에게 감추고 싶어하며 말을 못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마음속으로 임신을 부정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점점 변해오는 몸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 자신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아기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아기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아기가 점점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유산을 생각하게 되나 유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아기가 더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져 아기가 죽기를 바라고 실제로 죽어 없어지라고 배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생각이 배가 불러오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고 무기력에 빠져 죽음까지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자포자기하였다. 자신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물에 빠져 죽고 싶고, 차에 치여 죽고 싶고, 칼로 손목을 그어 볼 생각도 하고, 약을 먹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유서를 써 놓고 물에 빠지려는 시도도 하였다. 극단적인 해결책을 생각했지만 괴로움만 주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남자가 더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서 남자를 죽이고 싶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남자의 미움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아기에 대한 미움도 강해졌다. 그러나 임신 말기가 되어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아기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인생을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미혼모들이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하여 겪는 분만 체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van Manen의 해석학적·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해석학적·현상학적 반성 및 글쓰기를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혼모로 7명이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였고, 심층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은 녹음을 통하여 1차로 확보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수집된 진술들을 분석하여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미혼모의 임신 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원과 수필과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참조하여 미혼모의 임신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미혼모의 임신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남자에 대한 미움’, ‘아기에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하였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참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초기에는 좋은 친구관계로 지내다가 관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임신을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태동을 느끼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두려우므로 임신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알게 된다.

참여자가 죄의식을 느끼면서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자 남자친구는 이를 부인하고 아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남자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정상 임신부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감정이다. 그러나 임신한 것을 남자친구가 인정하지 않자, 참여자는 남자를 미워하다가 증오를 하게 되고, 또한 아기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기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고 배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아기를 미워하고 원망도 한다. 미혼모의 예기치 않은 임신은 아기를 원망하고 아기가 없어지기를 바랄 뿐, 아기에게 태교를 하고 몸가짐을 의식하고 바르게 하고 아기의 건강을 염려하는 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임신에 대한 사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거니와 아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과 나이가 어리므로 아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참여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자포자기하게 되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임신을 고통으로 여기게 된다.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기도 죽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죽기를 바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은 등을 돌린 남자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데, 이는 미혼모들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사실들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마음 고생을 하였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친정 어머니의 사랑을 강하게 느꼈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잡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삶이 성숙해지는 마음 공부를 하였다.

### 2. 제언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미혼모들의 임신중의 심리적 갈등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줄 간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미혼모들의 임신 중 태교 소홀로 태아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혼모들을 위한 태교 교실 등의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셋째, 미혼모들이 겪는 임신중의 체험연구를 통해 그들의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강봉룡 (1997). 성과 결혼의 풍속. 한국역사연구회

강태순 (1994).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계수연 (1998).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어국문학회 (1999).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권지용 (1974). 국제 실용 한자 명해. 서울 : 수지서림.

김근조 (1985). 미혼모와 사회문제. 현대 사회와 여성. 아산 사회 복지사업.

김상원 (1999).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와 바람직한 성교육 방안-성교육의 필요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http://huniv.hongik.ac.kr/~sho2yong/>

박문일(2000). 미혼모 임신의 문제점 및 예방. 한양대학교 산부인과교실.  
<http://rich.chonnam.ac.kr/health/9802/sp-2.htm>.

박문일 (1998). 미혼모 임신의 문제점 및 예방. 한국모자보건학회 제3차 학술대회 연제집. 35-46.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수천 (1998). 미정부의 미혼모 정책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제3차 학술대회 연제집. 보건복지부.

박흥주 (1993).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수잔 스텐포드 (1998). 내 울음 언제까지. 성양경 옮김. 서울 : 성서와 함께.

안순덕 (1985).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 85(4). 79-124.

윤혜미 (1999). 청소년 임신·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 아동복지학 8. .

이배용 등 (2000).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서울 : 청년사.

이찬 등 (1999). 한국청소년기 여성의 성경험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2(2). 307-319.

이화영이원 ehwababy.withme.net. 2000.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8.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성훈 (1999).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동진 (1990). 청소년 성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토마스 하디 (2000). 테스. 김만평 옮김. 서울 : 청목.

페트킹 바오로 (1996). 햇살 사이로 생명을. 성찬성 옮김. 서울 : 바오로딸.

한국여성개발원 (1996).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황연정, 이청화(1996) 알기 쉬운 한자 탐원. 서울 : 이화문화.
- Bacci, A., Manhica, G. M., Machungo, F., Bugalho, A., Cuttini, M. (1993). Outcome of teenage pregnancy in Maputo, Mozambique. J. of Gynaecology & Obstetrics, 40(1). 19-23.
- East, P. L. & Felice, M. E. (1992). Pregnancy risk among the younger sisters of pregnant and childbearing adolescents. J.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3(2). 128-136. 1992.
- Felice, M. E., Feinstein, R. A., Fisher, M. M., Kaplan, D. W., Olmedo, L. F., Rome, E. S., Staggers, B. C. (1999) Adolescent pregnancy-current trends and issues. Pediatrics, 103(2). 516-520. 1999.
- Lao, T. T. & Ho, L. F. (1997). The obstetric implications of teenage pregnancy. Human Reproduction, 12(1). 2303-2305.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Sunny Press. 신경림 역. 체험연구. 서울 : 현문사. 2000.
- Ventura, S. J., Mathews, T. J., Curtin, S. C.(1998). Declines in teenage birth rates, 1991-1997 : national and state pattern.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47(12). 1-17.
- Villanueva, L. A., Perez-Fajardo, M. M., Fernando, I. L. (2000). Socio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pregnant adolescents. Ginecology & Obstetrica de Mexico, 68. 143-148.



---

---

**ABSTRACT**

Key Words : unmarried mothers, pregnancy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regnancy Experience of Unmarried Korean Mothers

Han, Jin Sook\* · Moon, Young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nature of pregnancy experience among unwed Korean mothers and to figure out what it meant for them, by asking some of them to reflect on themselves in a written form from interpretative and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based on van Manen's research method of the same approach.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even unmarried mother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hrough December 2000 through in- 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The statements of the participants were taped, recorded, analyzed and select essential themes.

To have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pregnancy unmarried mothers, literary works, including essays and novels, were review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The selected substantial themes about the

pregnancy and birth experiences of the single mothers included 'hatred for boy friend,' 'hatred for the fetus,' and 'hatred for myself.'

The unmarried mothers met their boy frien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riends. At first, they were good friends, but they soon went on a date and had sexual relation with no common knowledge about sex. Most of them were aware of their pregnancy after they felt fetal movement, but they put off taking the test because they didn't want to accept the fact and feared it. Such an attitude was rare among married pregnant women, and being pregnant with no prior preparation or sexual knowledge is not common in Western countries. They felt guilty and informed their boy friends of the fact, but the boy friends didn't admit their responsibility and rejected the babies. This made the poor girls hate them, and it turned into severe abhorrence. They thought their lives were ruined by the babies, and wished they would disappear. They reproached the babies, hitting their own bellies or making a kick. They

---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considered themselves to be abandoned and didn't want to live any more. Giving themselves up to despair, some attempted to commit a suicide. They hoped to die, thinking their death would solve the problem. When they lost a chance of abortion and were about to have the babies adopted, they felt sorry for them. The unwanted pregnancy gave them a pain, but they keenly felt they were loved by their mothers, and learned the value of family.

It's attempted in this study to clearly show how much unmarried Korean mothers suffered from pregnancy, and this effort paved the way for seeing unwed mothers in a new light and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m, instead of sticking to general perception.